

나주시, 건설 공사 부실 잡고 예산 절감...특별점검반 '효과'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주민 숙원사업 174건 현장 점검
배수로 정비 등 공정 미흡 등 대응

나주시가 부실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성과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 효과를 향상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감사실에 추진 중인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주민 숙원사업 등 174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44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아스콘 포장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로 자재 불량, 공정 미흡, 부실 자재 사용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특별점검반의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공사 품질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둬왔으며 점검 인력을 확대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민원 발생 이전에 현장을 관리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설계 과정에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불필요한



나주시 관계자들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공정과 과다 산정된 물량을 조정하여 총 1억 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사업인 만큼 사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꼼꼼한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부실 공사 없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현장위주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생태공원·보은산·가우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국토부 공모 선정...내년까지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 면제

강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은 지난달 30일 드론산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총 3개소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의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대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 전방위적인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정된 구역별 실증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실증이 이뤄진다. 보은산 일대는 산악지역 특성을 활용한 드론 물류 배송 실증지로 운영된다. 가우도 일대는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함께, 섬 지역 배송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군은 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드론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라며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강진의 미래 산업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성 고교생 22명, 독일서 우정 쌓고 시야 넓혔다



장성군 글로벌 인재캠프 독일 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청소년 실천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6박 8일간 ‘글로벌 인재캠프’

망명 독립운동가 이미륵 선생 추모
대문호 괴테의 삶 탐구도

장성군은 지역 내 고등학교생 22명이 최근 ‘글로벌 인재캠프’ 독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장성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장성지역 4개 고

등학교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 독일 현지에서 머물며, 독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이미륵 선생을 기리고 손기정, 남승룡 선수의 애국심과 역사의를 되새겼다.

이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청소년 실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삶을 탐구하는 등 인문학적 소양도 길렀다.

베를린 쉴러 김나지움 학생들과 교류협력 기회도 가졌다. 독일 학생들은 오는 10월 장성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글로벌 인재캠프 외에도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중학교 2학년 국외 역사문화탐방,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주목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고교 글로벌 인재캠프’가 장성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세계무대를 향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휴대용 방역장비 무료 대여

다중이용시설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3개월간...희망자 신청

장성군이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휴대용 방역소독기와 친환경 소독약품을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장성군민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8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형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를 확대했다.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시설 관계자는 장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7174)에 연락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군은 방역소독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 간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장비를 대여해 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대만 융징향, 미래 농업 기술 교류

방문단, 농기센터 견학...작물 재배·스마트 농업 현장 둘러봐



담양군이 지난 5일 대만 장화현 융징향과 미래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농업 경험과 기술을 공유, 농가소득 증진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앞서 대만 융징향 관계자들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하며 작물 재배와 첨단 농업기술 현장을 둘러보고,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 위석형 융징향

장, 김나빈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농업 분야에서 보유한 우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첨단 미래 농업시대에 발맞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융징향은 대만 내 화훼와 원예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축항-메리컨 등 우수 딸기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풍년 기원’ 우봉들소리 민속 공연 재현

화순군, 9일 춘양면 우봉마을 당산거리·신야평 들판

화순군은 풍년 기원 ‘우봉들소리’ 민속 공연이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춘양면 우봉마을 앞 신야평 들판과 우봉마을 당산거리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우봉들소리’는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특히 우봉들소리는 지식강변 농경문화가 활발한 춘양면·능주면·도곡면 일대에서도 가장 먼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으로 화순의 대표 농경문화 속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종목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우봉들소리 보존회원과 출향인·지역 주민·관련 학회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벼가 자라는 논에 들어가 농민들이 직접 감매기를 재현하면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옛 논농사를 재현하면서 당시 불렀던 들소리를 잊지 않고 보존·전승하겠다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담겼다.

오전 9시에는 식전 행사로 깃발을 앞세운 마을 농악대의 동네 한 바퀴 길놀이도 예정되어 있다. 출향인과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해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061-379-317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경찰, 물놀이장 불법촬영 현장 점검



사위장·탈의실 전파 탐지

화순경찰이 여름 휴가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피서지 물놀이장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피서지 물놀이장을 선정 열화상 및 적외선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불법카메라 간이탐지카드를 배부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장승영 화순경찰서장은 “화순 군민들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 불안 요소 등을 제거하고 간이탐지카드를 배부하는 등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와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